생활·불편

05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부서 | 경기도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094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개선배경

- 양주1동의 주한미군 탄약고인 '캠프광사리'는 1985년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됨
- 하지만 인접지역인 양주2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 탄약고의 안전구역 경계 설정 시 기준을 탄약고 상단에서 측정하여, 실질적 피해 지역인 양주2동은 안전구역권에 미포함됨

    [안전구역(지역권)이 작업단 상단에서 반경 600피트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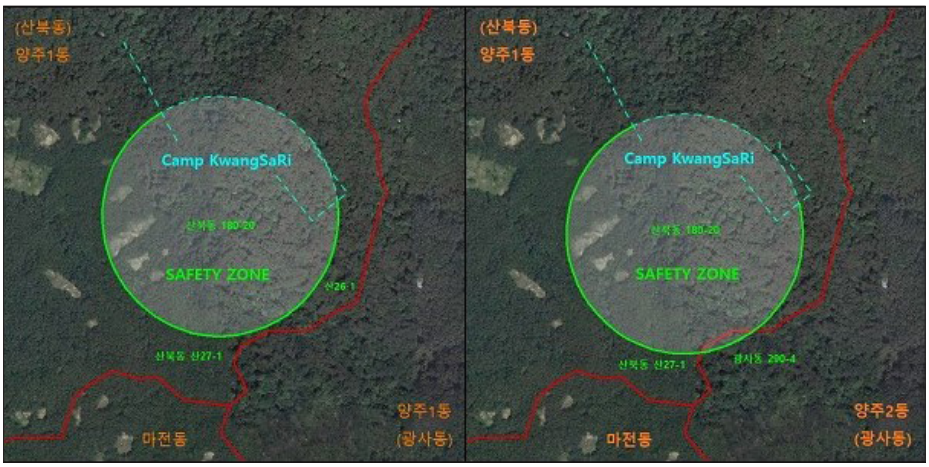
    ※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 및 구역(주한미군공여구역 = 전용지역 + 안전구역)
- 양주2동은 공여구역에 해당되지않아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로인해 낙후지역으로 남아 투자 및 개발 제약을 받음
  - 양주2동은 실질적인 공여구역 인접지역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 등 주민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안전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법 혜택(개발부담금 등)에서도 제외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제5호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개발 부담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공여구역 소재 및 인접지역)

개선내용

이전(기존) | 현재(변경)



■ 양주1동(산북동) 지역 내 안전구역 설정

■ 양주2동(광사동) 지역 안전구역 포함
*대상 지역: 광사동 290-4번지

● 공여구역(탄약고)거리 설정 기준 변경

– 탄약고 거리 설정 기준의 재조정
: 경계측량을 작업장 상단에서 작업장 중심으로 재설정하여 공여구역 확대
(기존) 양주1동 → (변경) 양주1동, 양주2동

–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공역구역)의 불합리한 거리 설정 변경 가능

추진과정



● 2017. 12. 캠프광사리 공여구역 희귀 도면 열람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공여구역 재조정 필요성 제기 ☞ 국방부측에 정확한 경계재측량 및 SOFA과제 반영 건의

● 2018. 08. 공여경계 확정을 위한 SOFA과제 실무공동대표 임명 요청

● 2020. 11. 양주시장 서한문 전달(주한미군측)

● 2020. 12. 캠프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문

● 2022. 04. 국방시설본부 SOFA 과제 추진 관련 업무검토 협의

● 2022. 07. 양주시장 촉구 서한문 재전달(주한미군측)

● 2024. 01. SOFA 합동실무단 합의권고서(AR) 서명

● 2024. 02. 국방시설본부의 경계 재확정 및 양주2동 공여구역 포함 공식 확인
☞ (AR 승인결과 알림)

● 2024. 03. 양주시의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 관련 언론보도 및 홍보

● 2024. 03.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감면 적용

개선효과



● 주한미군 공여구역(탄약고) 주변지역 재조정으로 개발부담금이 감면되어 공여구역의 투자 · 경제의 활성화 효과 기대

–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정 : 개발부담금 50% 경감

– 양주시 지하철 7호선, 신도시 개발 등 기업투자 간담회 실시

– 양주2동 지역 개발부담금 추이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부과건수	138	23	27	38	50	
부과금액	2,930,147	526,224	729,194	925,147	749,582	
평균금액	21,233	22,879	27,007	24,346	14,992	

☞ 부과건수 31.5%(12건) 증가, 평균 부과금액 38.5%(9,345천원) 감소
: 부과건수 증가로 개발요인 활성화를, 평균 부과금액 감소로 시민 부담 완화 설명

- 지난한 군사문제를 민–관–군 상생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모델 및 해결이 어려운 국가 간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한 모범사례 평가
  - 시민 편익 증진 및 지역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선도적 ·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규제 발굴
  -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공여구역) 중 불합리한 거리 설정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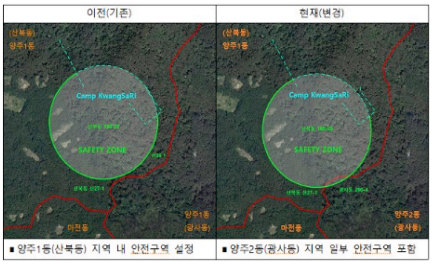
언론보도

국민일보 인쇄 취소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입력 2024-03-14 11:41

개발부담금 감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



경기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 경계 재조정을 통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 안건을 주도적으로 발굴·제안했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1월 26일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연합뉴스

2024-03-14 13:56

양주시, 미군 공여구역 경계 조정...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경기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 구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미군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한 사항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경계 재조정으로 양주1동에 한정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주2동은 전철 7호선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영식 기자